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 및 가족기능과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

김 정 엽¹⁾ · 조 현 숙²⁾

1)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Abstract =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and Stress Level in High School Students

Kim, Chung Youb¹⁾ · Jo, Hyun Sook²⁾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and their level of stress. **Method:** A questionnaire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36 questions on self-differentiation, 17 questions on family function, and 37 questions on level of stress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Participants were 201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from Bucheon C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with SPSS 10.0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mean scores for self-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and levels of stress were 3.27, 3.39, and 2.61 respe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level of stress reveal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stress level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variation in level of stress was related to family regression, recognition/emotional function, family projection,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and emotional cutoff which together explained 40.9% of the variance in level of stress.

Key words : Self concept, Family function, Stress

주요어 : 자아개념, 가족기능, 스트레스

교신처 : 김정엽(E-mail: caracerkim@hanmail.net)

투고일: 2007년 12월 24일 심사완료일: 2008년 1월 2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Chung-Youb(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534-2, Yeonsudong, Yeonsugu, Incheon 406-799, Korea

Tel: 82-32-820-4200 Fax: 82-32-820-4201 E-mail: caracerkim@hanmail.net.

서론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란 신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로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서 정서적 불안정이나 적응의 문제 그리고 비행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상 갖게 되는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긴장과 갈등 그리고 혼동 등의 위기상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큰 갈등이나 문제 없이 원만하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청소년들은 힘든 위기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게 된다. 위기상황 속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학업, 교우관계, 진로, 자아개념 등의 영역에서 부적응적 행동을 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 부담을 지우고 사회 문제화 된다(Kim, 1999).

Bowen(1971)의 자아분화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이 바로 정신건강과 연결되며 개인의 분화수준은 가족전체의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가족체계의 역기능은 자아분화를 방해하며 이러한 자아의 미분화는 개인으로 하여금 부적응, 역기능 하도록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지각과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역기능적 증상, 즉 신체 화, 강박증, 대인관계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 등이 나타난다고 했다(Je, 1989).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지성과 정서가 융합되고 정서적 체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의 적응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고 적응력이 낮아,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역기능적 증상을 나타내기 쉽다고 하였다(Je, 1989; Bowen, 1982).

가족은 인간 형성의 모체이며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관련한 상당한 책임을 진다고 본다(Lee, 1995). 가족은 일정한 구조와 기능 및 가치가 필수적이며, 그 중 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규모와 특성을, 기능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할의 범주를, 가치는 가족의 필요성과 응집력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Jo, Song, & Yoo, 2002)

가족의 기능 상실은 가족문제 발생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신체적·심리적 격동기에 있는 청소년은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때 정서적·행동적 부적응 상태에 놓이기 쉽다

(Kim, 1998). 따라서 이시기에 부모는 자녀가 변화에 잘 대처하도록 인지적인 면에서 교육하거나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Kim, 1998). 또한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은 부모의 훈육방식의 문제, 부모-자녀관계 친밀도와 애착 및 의사소통의 결핍, 부모의 감독소홀 등에 관한 부모-자녀관계와 역기능적 부부관계 및 가족체계의 낮은 기능성 등의 요인을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Kim, 1989).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족은 사회변화와 맞물려 가족원수의 감소, 가족의 이동성증가로 인하여 핵가족화 되었고 이혼율 증가, 폭력가족의 증가, 부모불화와 정신 병리 현상의 증가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Kim, 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중요한 자원은 가족의 관심과 사랑, 사회적 지지이며 이에 덧붙여 청소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양육형태와 가정 내 심리 풍토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Kim, Min, & Kim, 1996).

이에 자아분화는 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가정으로부터의 개성화된 정도를 의미하므로(Bowen, 1976) 청소년의 부적응 상태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족의 역동적인 기능과 청소년의 개인적 자율성, 대인관계 성숙도, 행동기능, 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Geun, 1993), 성인기의 자립을 앞둔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신적인 성장 발달과 함께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를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의 정도를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가족기능정도 와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가족기능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을 알아본다.

용어의 정의

-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1982)에 의해 정의된 용어로 개인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가정으로부터 개성화된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분화 정도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자아분화 정도를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나누어 진 자아분화 척도에서 얻은 점수를 말한다(Je, 1989).

●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할의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Jo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Kim(1998)이 가족기능에 대한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정서적 반응성, 적극적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의 기능으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

●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개념으로, 개인의 자원이 부족하여 자신의 안녕이 위험하다고 평가가 내려지는 개인과 환경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은 환경 및 개인 변인간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공부/일, 학내생활, 인간관계(친구), 인간관계(이성), 인간관계(가정)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생활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점수를 일컫는다(Won, 1990).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분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및 가족기능의 정도를 횡단 적으로 조사하여 각각의 관련성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천에 소재한 C와 S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은 편의 표출에 의하여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가 보고 형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예비조사를 통하여 검증한 후 재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필요한 도구와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 연구도구의 신뢰도

• 자아분화 척도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Je(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가 역기능적 행동 및 정신 내적 적응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5가지의 하위영역, 인지-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으로 나누어지고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1989)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전체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06)이 대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자아분화 전체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기능척도

가족기능척도는 McGill대학에서 개발된 McMaster의 가족기능모형(The McMaster Model of Family & Organization Assessment Device, FOAD)이며, Kim(1998)에 의해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사용된 가족기능척도(FOAD)의 총 문항 수는 17문항이며 척도의 구체적 내용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주어진 자기에 적절한 양과 질의 감정을 나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정서적 반응성(affective responsiveness) 4문항, 가족 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효율적인 가족기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적극적인 가족문제해결(active problem solving) 5문항, 도구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족성원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4문항, 가족성원들이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반복적 행동유형을 측정하고 가족성원들의 활동이나 관심사에 어느 정도 지지하고 관심을 나타내는가를 측정하는 역할인식과 정서적지지(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1998)의 연구에서는 4가지 요인 전체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4가지 요인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수준 척도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Won(1990)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검사로 환경변인,

환경 및 개인변인, 개인변인 3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관점의 스트레스 중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 스트레스 개념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역동적인 면이 강조되고, 대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양하므로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개인에 의해 지각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여기서는 환경 및 개인변인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경 및 개인변인에는 공부/일, 학내 생활, 인간관계(친구), 인간관계(이성), 인간관계(가정)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37문항으로 되어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6)의 연구에서는 환경 및 개인변인 전체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수준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절차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분화 정도, 스트레스 수준, 가족기능 정도를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었으며 수집된 213부 중 누락된 자료 12부를 제외한 총 201부(93.4%)를 최종 자료로 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기능,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연구 변인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와 가족기능, 스트레스 수준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15세에서 16세로 15세가 69.7%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5.3±.5세였다. 성별은 남자가 51.7%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48.3%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음이 50.2%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0.5%였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42.8%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과 회사원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01)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Age	15	140(69.7)	15.30(.49)
	16	61(30.3)	
Sex	Male	104(51.7)	
	Female	97(48.3)	
Education	2nd-grade of high school	201(100.0)	
	None	101(50.2)	
Religion	Christian	59(29.4)	
	Catholic	23(11.4)	
	Buddist	18(9.0)	
Family Father	With	199(99.0)	
	Without	2(1.0)	
Mother	With	200(99.5)	
	Without	1(0.5)	
The status of parents' living	Extended family	10(5.0)	
	Immediate family	182(90.5)	
	Single family	9(4.5)	
Birth order	First	86(42.8)	
	Middle	23(11.4)	
	Last	76(37.8)	
	Only child	16(8.0)	
Father's occupation	Business owner	71(35.3)	
	Government worker	12(6.0)	
	Office job	71(35.3)	
	Professional	25(12.4)	
	Business	15(7.5)	
	One day job	3(1.5)	
None	4(2.0)		
	Junior high		10(5.0)
	High school		119(59.2)
College above	72(35.8)		
	Housewife		92(45.8)
Mother's occupation	Business owner	27(13.4)	
	Government worker	8(4.0)	
	Office job	46(22.9)	
	Professional	7(3.5)	
Business	16(8.0)		
	One day job		5(2.5)
	Elementary		7(3.5)
Mother's education	Junior high	16(8.0)	
	High school	137(68.2)	
	College above	41(20.4)	
Health condition	Excellent	59(29.4)	
	Good	89(44.3)	
	Normal	34(16.9)	
Week	8(4.0)		
	Disease		11(5.5)

이 35.3%이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59.2%였고,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45.8%였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68.2%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44.3%였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분화

연구대상자의 자아분화수준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자아분화수준은 가족퇴행이 3.49±0.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 단절, 가족 투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평균자아분화수준은 3.27±0.44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종교, 가족구성, 가족형태, 출생순위, 부모의 직업과 학력, 본인의 건강상태와의 통계적 차이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어머니의 계심과 안 계심($t=2.17, p<0.05$)의 경우와 본인의 건강상태가 자아분화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F=4.29, p<0.01$). 또한 Scheffe 사후 검증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함과 보통이다 에서 두 군 간에 자아분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구 대상자의 가족기능

연구대상자의 가족기능 점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은 정서적 반응이 3.59±0.80으로 가장 높았으며,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 커뮤니케이션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가족기능 점수는 3.39±0.65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종교, 가족구성, 가족형태, 출생순위, 부모의 직업과 학력, 본인의 건강상태와의 통계적 차이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종교의 유무($t=-3.00, p<0.01$)와 어머니의 계심과 안 계심($t=2.35, p<0.05$)과 본인의 건강상태($F=3.9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Scheffe 사후 검증에서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함과 건강하다에서 가족기능이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공부/일이 3.22±0.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이성), 인간관계(친구), 인간관계(가정)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스트레스 수준은 2.61±0.48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성별, 종교, 가족구성, 가족형태, 출생순위, 부모의 직업과 학력, 본인의 건강상태와의 통계적 차이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t=-2.26, p<0.05$)과 본인의 건강상태($F=3.15,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

● 자아분화와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분화와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른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r=.563, p<0.001$ 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정서적 반응성($r=.537, p<0.001$)과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r=.537, p<0.001$)에서 자아분화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Table 2> Self 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and level of stress

(N=201)

Item	Range	M(SD)	Total
Self differentiation	Recognition/emotional function	3.08(.60)	3.27(.44)
	Self unity	3.03(.56)	
	Family projection	3.24(.87)	
	Emotional cutoff	3.38(.84)	
	Family regression	3.49(.67)	
Family function	Affective responsiveness	3.59(.80)	3.39(.65)
	Active problem solving	3.16(.69)	
	Communication	3.35(.81)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3.50(.77)	
Level of stress	Studying/work	3.22(.62)	2.61(.48)
	School life	2.13(.71)	
	Relationship (friendship)	2.34(.57)	
	Relationship (opposite sex)	2.58(.78)	
	Relationship (home)	2.32(.68)	

<Table 3> Relationship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 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level of stress (N=201)

Characteristics	Division	N	Self 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Level of str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15	140	3.31(.41)	1.886	3.40(.63)	.401	2.56(.45)	-2.260
	16	61	3.19(.49)	(.061)	3.36(.69)	(.689)	2.73(.53)	(.025)*
Sex	Male	104	3.29(.41)	.641	3.41(.63)	.555	2.63(.53)	.365
	Female	97	3.25(.47)	(.522)	3.36(.67)	(.579)	2.60(.43)	(.715)
Religion	With	100	3.30(.42)	-.731	3.52(.60)	-3.001	2.65(.47)	-1.036
	Without	101	3.25(.45)	(.466)	3.25(.67)	(.003)**	2.58(.49)	(.301)
Family father	With	199	3.28(.44)	.629	3.39(.65)	-.044	2.61(.48)	-.622
	Without	2	3.08(.27)	(.530)	3.41(.24)	(.965)	2.83(.27)	(.535)
Family mother	With	200	3.28(.43)	2.166	3.39(.64)	2.345	2.62(.48)	.152
	Without	1	2.33(.00)	(.032)*	1.88(.00)	(.020)*	2.54(.00)	(.879)
Family status	Extended family	10	3.45(.28)		3.58(.32)		2.53(.61)	
	Immediate family	182	3.28(.44)	2.275	3.39(.63)	2.002	2.62(.47)	.344
	Single family	9	3.03(.37)	(.105)	3.01(1.04)	(.138)	2.52(.61)	(.710)
Birth order	First	86	3.26(.44)		3.38(.71)		2.58(.46)	
	Middle	23	3.14(.45)	1.563	3.27(.54)	.424	2.80(.46)	1.266
	Last	76	3.35(.42)	(.200)	3.44(.62)	(.736)	2.61(.50)	(.287)
	Only child	16	3.21(.48)		3.35(.60)		2.57(.49)	
Father's occupation	With	197	3.27(.44)	-1.750	3.39(.65)	-.156	2.62(.49)	.734
	Without	4	3.72(.38)	(.082)	3.45(1.06)	(.876)	2.41(.19)	(.464)
Father's education	Junior high below	10	3.26(.61)	.033	3.31(.29)	.415	2.63(.76)	.013
	High school	119	3.27(.42)	(.967)	3.36(.66)	(.661)	2.62(.48)	(.987)
	College above	72	3.29(.45)		3.44(.67)		2.61(.46)	
Mother's occupation	With	109	3.27(.44)	.319	3.37(.65)	.576	3.37(.65)	-.852
	Without	92	3.29(.43)	(.750)	3.42(.63)	(.565)	3.42(.63)	(.395)
Mother's education	Elementary	7	2.99(.52)		3.23(.58)		3.00(.55)	
	Junior high	16	3.31(.35)	1.161	3.37(.51)	.156	2.67(.64)	1.399
	High school	137	3.30(.43)	(.326)	3.41(.66)	(.926)	2.59(.46)	(.244)
	College above	41	3.23(.45)		3.38(.66)		2.61(.47)	
Health condition	Excellent	59	3.44(.41)*		3.61(.64)*		2.46(.50)	
	Good	89	3.26(.42)		3.27(.64)*		2.63(.46)	
	Normal	34	3.16(.42)*	4.293	3.19(.64)	3.963	2.73(.41)	3.153
	Week	8	3.11(.45)	(.002)**	3.72(.50)	(.004)**	2.91(.51)	(.015)*
	Disease	11	3.02(.50)		3.47(.43)		2.77(.60)	

* p<.05 ** p<.01

<Table 4> Cor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Range	Family function	Affective responsiveness	Active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r(p)	r(p)	r(p)	r(p)	r(p)
Self differentiation	.563*** (.000)	.537*** (.000)	.360*** (.000)	.482*** (.000)	.537*** (.000)
Recognition/ emotional function	.174* (.013)	.151* (.032)	.124 (.078)	.152* (.031)	.163* (.020)
Self unity	.034 (.628)	-.041 (.561)	.095 (.180)	.039 (.585)	.018 (.797)
Family projection	.173* (.014)	.260*** (.000)	-.026 (.710)	.196** (.005)	.171* (.015)
Emotional cutoff	.459*** (.000)	.505*** (.000)	.266*** (.000)	.389*** (.000)	.402*** (.000)
Family regression	.654*** (.000)	.552*** (.000)	.492*** (.000)	.523*** (.000)	.652*** (.000)

* p<.05 ** p<.01 *** p<.001

나타냈으며, 커뮤니케이션($r=.482, p<0.001$), 적극적 문제 해결($r=.360, p<0.0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퇴행에서 가족기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54, p<0.001$)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단절($r=.459, p<0.001$)과 인지/정서적 기능($r=.174, p<0.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 중에는 자아분화의 가족퇴행과 가족기능의 역할 인식과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r=.652, p<0.001$)를 나타냈다.

●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r=-.589, p<0.001$ 로 나타났다. 그 중 인간관계(가정)에서 자아분화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628, p<0.001$)를 나타냈으며 인간관계(친구) ($r=-.490, p<0.001$), 공부/일($r=-.381, p<0.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퇴행에서 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457, p<0.001$)를 나타냈으며 인지/정서적 기능($r=-.429, p<0.001$), 가족 투사($r=-.425, p<0.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 중에는 자아분화의 가족퇴행과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550, p<0.001$)를 나타냈다.

● 가족기능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기능과 스트레스 수준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r=-.211, p<0.001$ 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간관계(가정)에서 가족기능이 유의하게 가장 높은 부적상관($r=-.374, p<0.001$)으로 나타났고 인간관계(친구) ($r=-.192, p<0.01$), 학내생활($r=-.167, p<0.01$)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서적 반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r=-.218, p<0.01$)을 나타냈으며 커뮤니케이션($r=-.196, p<0.01$),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r=-.195, p<0.01$) 순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 변인 중에는 가족기능의 정서적 반응이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376, p<0.01$)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분화, 가족기능, 스트레스 수준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Table 5> Cor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and level of stress

Range	Stress	Studying/ work	School life	Relationship (friend ship)	Relationship (opposite sex)	Relationship (home)
	r(p)	r(p)	r(p)	r(p)	r(p)	r(p)
Self differentiation	-.589*** (.000)	-.381*** (.000)	-.370*** (.000)	-.490*** (.000)	-.268*** (.000)	-.628*** (.000)
Recognition/ emotional function	-.429*** (.000)	-.315*** (.000)	-.252*** (.000)	-.416*** (.000)	-.244*** (.000)	-.328*** (.000)
Self unity	.061 (.391)	-.005 (.943)	.173* (.014)	.091 (.198)	.015 (.829)	.018 (.797)
Family projection	-.425*** (.000)	-.306*** (.000)	-.308*** (.000)	-.366*** (.000)	-.167* (.018)	-.398*** (.000)
Emotional cutoff	-.421*** (.000)	-.257*** (.000)	-.294*** (.000)	-.312*** (.000)	-.184** (.009)	-.488*** (.000)
Family regression	-.457*** (.000)	-.243*** (.000)	-.309*** (.000)	-.382*** (.000)	-.198** (.005)	-.550*** (.000)

* p<.05 ** p<.01 *** p<.001

<Table 6> Correlative relationship of family function and level of stress

Range	Stress	Studying/Work	School life	Relationship (friendship)	Relationship (opposite sex)	Relationship (home)
Family function	-.211** (.003)	-.031 (.659)	-.167* (.018)	-.192** (.006)	-.039 (.587)	-.374*** (.000)
Affective responsiveness	-.218** (.002)	-.008 (.910)	-.215** (.002)	-.185** (.009)	-.075 (.291)	-.376*** (.000)
Positive problem solving	-.110 (.119)	-.020 (.780)	-.083 (.240)	-.112 (.114)	-.016 (.821)	-.187** (.008)
Communication	-.196** (.005)	-.058 (.410)	-.097 (.171)	-.159* (.024)	-.029 (.683)	-.365*** (.000)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195** (.005)	-.019 (.784)	-.177* (.012)	-.197** (.005)	-.011 (.876)	-.349*** (.000)

* p<.05 ** p<.01 *** p<.001

<Table 7> Cor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and level of stress

Range	Self differentiation	Family function	Level of stress
	r	r	r
Self differentiation	1.000		
Family function	0.563**	1.000	
Level of stress	-0.589**	-0.211**	1.000

** p< .01

r=.563,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수준은 r=-.589, p<0.01, 가족 기능과 스트레스 수준은 r=-.21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영향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의 영향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 변수의 영향과 크기를 검증한 결과 자아분화의 가족회해가 20.9% 예측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인지/정서적 기능과 가족투사, 역할인식과 정서적 지지, 정서적 단절이 총 40.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개인의 역기능적 행동, 성격형성 및 발달에 있어서 가족역동성의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Bowen의 자아분화 이론에 입각하여 고등학생의 자아분화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분화 정도와 관련된 고등학생의 가족기능 및 스트레스 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천에 소재한 C와 S 고등학교 남, 여 학생 201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아분화 수준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어머니의 계심과 안 계심의 경우와 본인의 건강상태가 자아분화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자아분화에 어머니의 존재와 여성성의 역할이 다른 요인보다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고,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도 대상자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Kim, 1998), 본인이 건강할 때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지각과정을 잘 구별하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적응력과 융통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자아분화의 수준 또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Je, 1989; Bowen, 1982).

둘째, 대상자의 가족기능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종교의 유무와 어머니의 계심과 안 계심과 본인의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족 간의 정서적 반응과 적극적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역할 인식과 정서적 지지가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여성성이 가족기능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대상자 본인이 건강할 때 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긍정적으로 가족 기능에 기여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되며, 이 결과는 Kwon, Ahn, Song과 Jang(2006)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타났으나 건강한 상태 일수록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은 공부/일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대상자의 연령과 본인의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현재 가장 진학 및 진로와 관련된 학업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취업에 대한 관심을 서두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공부/일에 대하여 갖고 있는 3.37의 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Kim, 2006; Cho, 2004)). 또한 대상자의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형제순위가 높고 따라서 부모의 애착과 높은 관심 속에 연령이 낮은 학생보다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게 나왔으리라 사료되며((Kim, 1999) 또한 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하여 낮은 스트레스를 보

<Table 8> Multiple regression of variation differences

Range	Level of stress						
	β	t	p	R	R ²	F	p
Family regression	-.457	-7.254	.000	.457	.209	52.623	.000
Recognition/emotional function	-.346	-5.770	.000	.568	.323	47.227	.000
Family projection	-.239	-3.715	.000	.606	.367	38.121	.000
Role recognition and emotional support	.203	2.755	.006	.625	.391	31.445	.000
Emotional cutoff	-.171	-2.465	.015	.640	.409	27.023	.000

였다고 생각된다.

넷째,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른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r=.563$, $p<0.001$ 로 나타났으며, 연구 변인 중에는 자아분화의 가족퇴행과 가족기능의 역할 인식과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퇴행하면 인과론적 사고가 발달하고 자기 책임에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며 위기에 처할 때 동질화 경향을 띠며 갈등 폭력도 그 일환이라 설명한 Bowen(1978)의 이론과 같이 가족기능에 있어 가족 각자가 자기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와주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며 지지 격려하여 줄때 대상자의 자아분화와 관련된 가족퇴행의 수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립되리라 생각된다(Je, 1989).

다섯째,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r=-.589$, $p<0.001$ 로 나타났으며, 연구 변인 중에는 자아분화의 가족퇴행과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의 기능이 퇴행되어 인과론적 사고가 발달하고 자기 책임에는 소홀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의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며(Bowen, 1978) 자아분화의 긍정적인 가족퇴행의 정도가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가족기능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r=-.211$, $p<0.001$ 로 나타났으며, 연구 변인 중에는 가족기능의 정서적 반응이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이 서로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감싸주고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좋은 일이 있을 때 기꺼이 축하해 줄 경우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의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며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하루에 6회 씩 일주일 간 측정한 Lee(2003)의 연구에서 남, 여 학생 모두 가족과 있을 때가 친구나 다른 사람 혹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였으며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가족 기능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유추된다.

일곱째,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 변수의 영향과 크기를 검증한 결과 자아분화의 가족퇴행이 20.9% 예측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인지/정서적 기능과 가족투사, 역할인식과 정서적지지, 정서적 단절이 총 40.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자의 자아분화와 함께 관련된 가족기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립되었을 때 대상자 등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게 되리라 기대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자아분화의 가족퇴행과 가족기능의 역할 인식과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가족기능과 스트레스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그 중 자아분화의 가족퇴행과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족기능의 정서적 반응이 스트레스의 인간관계(가정)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덧붙여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자아분화와 가족기능 변수의 영향과 크기는 자아분화의 가족퇴행이 20.9% 예측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인지/정서적 기능과 가족투사, 역할 인식과 정서적 지지, 정서적 단절이 총 40.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제언

연구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정도와 가족기능 및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한 지역의 고등학생들로 국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별, 지역별로 개인적 특성이 다양한 다수의 표집을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아분화와 가족기능,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더 많은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셋째,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자아분화 정도를 스스로 인식하고 특히 가족퇴행의 정도를 향상시키며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증진시켜 스트레스의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해석과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Bowen, M. (1971). *The use of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in Jay Haley, *Changing families*, New York: Grune & stratton.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actice.
- Bowen, M. (1978).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J Guerin(Ed.), Family therapy: Theory & practice*, New York: Gardner.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the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ho, S.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Their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Jeonju

- University.
- Geun, M. Y.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unadaptive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t*.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e, S. B.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Based on Bowen's family system theor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Jo, K. J., Song, J. H., & Yoo, I. Y. (2002). *Family-centered nursing care of children*, Seoul: Hyunmunsa.
- Kim, B. H.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self esteem and mental health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 Kim, C. Y. (2006). Self-differentiation, stress level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2(2), 238-247.
- Kim, H. S., Min, B. K., Kim, H. S. (1996).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criminal pattern and family type in Kore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5(3), 574-593.
- Kim, J. E. (1998). *A study on the family functioning and its relation to juvenile delinquency-focused on average adolescents and juvenile delinquent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 Kim, Y. H. (1989).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Graduate School, Sook Myung Woman's University.
- Kwon, M. K., Ahn, H. Y., Song, M. R., & Jang, M. Y. (200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family function and social support to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2(2), 180-18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Lee, M. R. (2003). Daily contextual variations in levels of adolescent happiness. *Korean J Developmental Psychology*, 16(4), 193-209.
- Lee, N. Y. (1995). *Study on family function of the juvenile criminal pattern and drug abuse*, Graduate School, Seoul Women's University.
- Won, H. T. (1990).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university students, *Student Counseling Center*, Hongik University.